"1주일도 길다"…조기 자진사퇴 압박

여권 기류 급변…이완구 총리 사퇴론 확산

자고나면 새 의혹…'先 사의 後 처리' 방안 부상
청와대 "스스로 명예로운 방법 찾지 않겠나"
새정치 해임건의안 발의 정치공세 확대도 부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 "1주일만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보였던 여권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출국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해 '귀국 후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여권 내에 자진사퇴론이 진정됐었으나 이후 이 총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여론이 더욱 악화하면서 국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다며 이 총리 거취에 대한 '조기 정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20일 "다들 말을 아껴서 그렇지 이 총리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이 총리도 자신의 명예가 있으니 나름대로 명예로운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나아가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박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처리하는 그런 모습도…(가능할 것)"이라며 '선(先) 사의표명, 후(後) 처리' 방안까지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순방 중인 현 시점에는 국정 공백 문제로 이 총리가 당장 관둘 수는 없으니 일단 사퇴 의사만 먼저 표명하고 이달 27일 박 대통령의 귀국 후 이 총리의 거취를 최종 정리하자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지금은 오히려 총리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는 게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같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이 총리의 조기 자진사퇴 불가피론에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모양새다.

이처럼 이 총리 거취에 대한 여권 내 기류가 급변한 것은 이 총리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 전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이 총리의 해명과 달리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과 주장이 날마다 새로 나오면서 여권 내에서 이 총리 문제를 계속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를 공식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 요소다.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처리' 규정에 따라 해임건의안 문제에 진전이 있으려면 새누리당의 국회 일정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는 하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정치공세로만 치부하고 거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전패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4·29 재보선을 위해서도 이 총리 거취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여당에 유리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총리는 전날 '4·19 혁명 55주년 기념식'에 이어 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공식 일정을 지속하면서 국정 수행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완구 총리 사퇴하라 임효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가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이완구 총리 퇴진 및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종참여연대 제공〉

광주소재 23개 국가기관 U대회 성공개최 힘 모은다

윤장현 시장 주재 간담회
대회 붐 조성·입장권 판매
기관별 협력방안 집중 논의

광주지역 내 23개 국가기관·공사·공단들이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 U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0일 광주 모 음식점에서 광주소재 23개 국가기관장 및 공사·공단 책임자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열고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주제로 각 기관들과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 광주본부 세관장, 한전 광주전남본부장 등 지역 내 국가기관장 및 공사·공단 책임자 2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대회 붐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각 기관별 홍보 강화, 입장권 판매 협조 등을 비롯한 각 기관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광주 식약청은 대회기간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큰 여름철인 만큼 식음료 안전대책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선수단 내에서 집단 식중독 등이 발생할 경우 광주의 도시 이미지는 물론 국가 신인도의 추락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3대와 전문감식인력 41명, 식음료 안전전문가 6명이 참여하는 '식음료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전은 대회 경기장 전기설비 안전검사를 비롯한 2억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 약정(1차)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거점 공항에서 광주U대회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광주본부세관은 선수단 경기용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과 북한 선수단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국 시 휴대품 통관 등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U대회는 광주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큰 행사인 만큼 광주소재 각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대회 파견 공무원 289명 내년 7월까지 단계별 복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광주시 공무원이 내년 7월까지 단계별로 나눠 전원 복귀한다.

본청을 제외한 자치구, 시·군, 정부부처 공무원 등은 대회 종료에 맞춰 우선해서 원대 복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일 시의회 김민종(광산4)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날 현재 파견된 시 공무원은 167명으로 시 본청 인력 수요와 조직위원회 업무량 감소 추이를 검토해 대회 종료 뒤 단계적으로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U대회가 끝나는 7월말께 70여명을 복귀시켜 실과소 결원 해소와 퇴직인력 대체, 도시철도본부 인력보강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2단계로 오는 10월께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에 맞춰 40명을 수영대회 조직위 인력으로 투입한다.

3단계는 내년 1월 상반기 인사에 39여명을 받아 도시철도본부 인력 등을 추가 보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잔류 인력 30여명은 조직위원회 청산과 재산처분 등의 업무를 마무리한 뒤 내년 7월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 추진에 맞춰 도시철도건설본부 인력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현재 3급 본부장을 포함해 27명에서 7월 인사에서는 17명을, 내년 1월에는 51명, 7월에는 53명, 내년 1월에는 22명이 추가로 늘어 모두 170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조직위에는 사무총장 등 전문직 68명과 광주시와 자치구, 정부부처 등 289명이 파견돼 차질 없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광주시가 167명, 동구 등 자치구 48명, 전남도와 시군 45명,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 9명, 문체부와 행자부 등 11개 정부부처 20명 등이다. 광주U대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일 입을 꾹 다문 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도피성 출국 논란 김기춘 前 비서실장 조용히 입국

박지원 의원 "민감한 시기 국민적 의혹 키워"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출국, 일본에 머물다 20일 오후 귀국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측 관계자는 20일 "김 전 실장은 오래전에 잡혀 있던 개인적인 일정으로 어제 출국해 일본에 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실장은 부인과 함께 전날 낮 12시 35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편으로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20일 오후 6시5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 '일본 출국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검찰 수사에 응하실 것인가요'라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부인과 함께 카메라와 기자들에 둘러싸인 채 입국장을 나와 공항 바깥에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탈 때까지 2분여 동안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현재 8명 중 1명이 어제 출국, 현재 갖고 있는 휴대전화가 해외로밍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와중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 출국했다면 더 큰 국민적 의혹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화기가 해외로밍돼 있다면 이는 (출국 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경로로 출국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